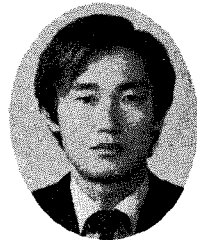


특집 : 신음하는 채란양계...그 돌파구를 찾는다

# 채란양계 불황...언제쯤 끝날까?

신 홍 종  
(고창양계 대표)



신유년 닭의 해를 맞이한지도 한달이 지나간다. 인간은 누구나 새해를 맞이 할때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설계하게 되지만, 우리들 양계인이 유별나게도 닭띠의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대를 갖는데는 지난 해의 양계 불황이 극심했기 때문에 양계경기가 하루속히 안정속에 회복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있을 것이다. 요즘 채란 양계업에 종사하는 많은 농가들과의 대화는 한결같이 채란양계 불황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내용이다.

어떤 농가는 지난해의 경기침체 유발요인이 국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유가의 계속되는 상승과 환율 조정에 따른 사료 곡물가의 빈번한 인상 등 국외적인 문제가 더욱 큰 비중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상태에서 쉽사리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비관론이 있고, 다른 농가는 상대물가와 비교할 때 달걀값이 더 이상 하락 할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해의

어려운 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실한 많은 양계 농가가 정리되었으며 노계의 불가피한 도태와 신제 입추의 축소 등으로 생산위축이 필연적으로 야기되어 경기 불황은 생각 보다 빨리 회복 되리라는 낙관론이 있어 경기예측을 명확히 전망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본인이 반 평생을 양계업에 종사 하면서 뼈저리게 체험한 바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은 타인의 힘에 의한 해결이 되기 보다는 어려움을 이겨 내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얼마나 경주 하느냐에 따라 잘잘못간에 귀결이 맺어지던 값진 교훈을 간직하고 있는 까닭에 오늘의 채란 양계 불황 또한 이를 극복 하려는 농가 스스로의 노력들이여 하히 효율적으로 집중되느냐에 따라 적자생존 이라는 엄연한 현실하에 다른 기업들과 어깨를 겨누며 경기 회복을 맞이하게 될수있을 것이라는 점은 자신있게 말씀 드리고 싶다.

양계업의 경영이 어려워진데서 파생되는문

제들 이겠지만, 오늘의 우리 주변을 냉철히 관찰하여 볼때, 병아리가 잘 크지 않는 것은 병아리 생산이 잘못된 것이고 산란율이 저조한 것은 사료의 효율이 저하되게 만든 사료공장의 책임이고 계란값이 떨어지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와 유통이 잘못되는 중간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기력한 경향이 높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을 긍정 하다보면 막대한 자본과 노력과 시간이 투입된다. 소중한 농장을 순전히남의 잘못 때문에 도산 시킨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참된 보람이 뜻을 세우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올바른 방법으로 소망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다져볼때 스스로의 의지로 세운 농장은 비록 남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나의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계란값이 떨어질 때는 고용노력이 아닌 자가 노력들이 직접 소비시장에 뛰어 들어 제 값을 받아내야 하고 과학적인 사양관리에 근거를 두어 돈이 들지 않는 땀 흘리는 노력으로, 경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줄기찬 노력들을 한층 배가시켜 간다면 결코 넘어질 수 없는 값진 유산이 되리라고 믿는다.

본인은 결론적으로 오늘의 불황이 언제 종식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서 말한 이러한 관점에 중점을 두고 경기에측을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통계 자료에 의한 면밀한 수치는 도외시 하고라도 오늘의 생산 실태를 돌아 볼때, 지난해 채란양계의 극심한 불황은 상당수의 노계를 도태 할 수밖에 없었고 하반기 늦게나마 계속의 공급 부족으로 노계값이 유리하게 처분되자 불가피하게 노계도태가 추가되어 현재 사육 생산중인 산란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환우 시켰던 닭들이 예상보다 산란율이 저하되고 있다. 경영이 어렵다 보니 다소 유리한 공급조건 때문

에 일부 저질 사료들이 유입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최근 새로운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EDS (산란저하 증후군)의 발생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때마침 노계값 상승이 지속되어 처분이 유리하게 되자 산란중 조기도태와 증가되는 폐계수 등으로 4-5월 이후는 계란 생산이 예상보다 빨리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후 산란계 입추가 현재까지 대폭 축소되어 계란 생산을 증가 시킬 신체가 없으므로 난가 회복은 국내외적인 경기회복 조짐을 도외시 하고 수요와 공급면만을 검토 하더라도 상당한 폭으로 호전되리라는 전망을 확신할 것 같다. 그러나 항상 예측은 의외의 요인으로 예기치 못한 현실에 봉착하게 될 수도 허다한 것이니 만큼채란양계농가는 새로운 닭을 육추할 때는 반드시 철저한 격리 육추로 질병요인을 미리 예방하고,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한급이라든지 사료의 소화 효율 및 100 %영양 흡수를 위한 모래급여 등 기본적인 과학적인사양관리와 경영으로 땀 흘려 정성으로 사육한 닭들이 마래 및 EDS 에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 능력이 우수하게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어둠을 박차고 새아침을 알리는 힘찬 닭의 울음 소리와 함께 새해에는 새로운 축협시대가 개막되고 지난해의 수난을 타개 하면서 스스로의 노력만이 불황을 이겨내는 고귀한 원동력임을 체험한바 있어 이러한 노력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가 시키기 위해 반성과 결의가 새롭게 다져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오늘의 채란양계 불황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리라고 확신 하는 바이다. 끝으로, 과학적인 통계 자료와 수치도 없이 체험을 토대로 두서없이 말씀 드린데 대해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